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A Study on Buddhist Books Pu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Buddhist Monk Hyesun at Yongboksa Temple

오 용 섭 (Oh, Yong-Seob)**

◁ 목 차 ▷

1. 서 언	4.1 혜순
2. 용복사	4.2 간행방식
3. 간행불서와 특징	5. 각수와 연판
3.1 간행불서	6. 결 언
3.2 특징	<참고문헌>
4. 혜순과 간행방식	

< 초 록 >

경기도 삭령에 있었던 용복사는 국가의 경제상태가 매우 열악하였던 1628년부터 1636년까지 8년간에 걸쳐 26종 이상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불서를 간행한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임진왜란 이후 불교계의 세력이 결집되면서 불교계의 중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1643년경에는 간행사업이 거의 종료되었고, 이후 18세기 중기에는 폐사되어 현재는 그 흔적마저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간행실적과 함께 시주질 등에 수록된 간행실무자들을 살펴 용복사에서 간행한 불서들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간행사업의 주도자는 용복사의 승려인 혜순이었다. 그는 대시주에 상정, 별좌에 지목을 전담토록 하였고, 각수와 연판담당자 등 다른 실무자들도 지속적으로 참여시켰다. 또 분담하여 각관할 경우에는 양쪽의 업무를 조정하는 담당자까지 두으로써 단기간에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용복사에서 간행된 일부 불서의 특징은 새로운 내용이 보완되었고, 교정을 통해 내용이 정확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要語: 용복사, 혜순, 지목, 상정, 화사, 화주, 처준, 계능, 밀현, 성감, 당호, 법철, 조운, 밀영, 학수, 치밀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4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u.ac.kr)

접수일: 2015년 9월 7일 최초심사일: 2015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ABSTRACT>

Yongboksa was a temple located in Sakryoung, Gyeonggi-do Province. More than 26 kinds of Buddhist books were published in the temple from 1628 to 1636.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a prolific example. It was an effort to revive Buddhism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But around 1643, publishing work at the Yongboksa temple mostly came to an end, and Yongboksa has become a ruined temple since then.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hands-on workers of the publication process based on the “offering list.” Based on this research, I was able to 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books. The leader of the publication project at Yongboksa temple was the Buddhist monk Hyesun. He declared Sangjeong and Jimuk to be in charge of the most important work, and nominated several engravers and “skilled workers of woodblock” to continuously participate in the job. In case of sharing publications, he announced a person in charge so that the publication work could be efficiently finished in a short period of time. Some Buddhist books show characteristics of revisions and improvements. Because of the proofreading, we cannot overlook the accuracy of the content.

Key words: Yongboksa, Hyesun, Jimuk, Sangjeong, Hwasa, Hwaju, Cheojun, Gyereung, Milhyeon, Seonggam, Dangho, Beobcheol, Joun, Milyoung, Haksu, Chimil

1. 서 언

龍腹寺는 경기도 삭령¹⁾의 수청산에 소재한 사찰이었다. 창건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8세기 중기에 폐사되어 지금은 寺址마저도 불분명할 만큼 잊혀진 사찰이다. 그러나 17세기 전반기에 약 8년간에 걸쳐 다양한 불서를 간행하였으며, 일부 간본은 현재 국역본의 대본이 될 만큼 내용도 충실하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불서를 간행한 사례는 대장경 판각과 같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고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당시 이렇게 간행한 것은 임진왜란(1592~1598) 이후 국내에 유통되던 불서가 散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불교계가 결집되어 불교의 증흥을 도모하고자 한 배경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전쟁 직후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국가서적을 관장하던 도서관조차 서적을 인출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사찰본의 경우도 이 기간에 간행된 불서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이후 2~30년이 지나자 불서 보급에 강한 의지를 가진 승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惠淳이라는 용복사 승려도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불서 간행사업을 크게 일으켰을 뿐 아니라 용복사에 판전을 두어 그 목판들을 봉안해 놓기도 하였다. 이렇게 용복사는 불서 간행을 통해 중부권의 대표적인 사찰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636년에 병자호란(1636~1637)이 勃發하자 간행사업은 일단 중단되었다. 수년 뒤에 간행사업은 재개되었지만 근근이 명맥만 잇다가 1643년경에 혜순의 入寂과 함께 종료되어 버렸다.

혜순이 주도하여 간행한 불서 중에서 강원의 교재, 의식서, 淸虛의 저작, 禪書 등 26종 가량이 현전하고 있다. 이 판본들은 번각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청허집』과 같이 새로 찾아낸 내용을 보완 편집한 사례도 있다. 또 교정자를 두고 간행한 불서도 있으므로 교정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더 살핀다면 당시 간행의도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용복사와 간행불서는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 등으로

1) 현재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용복사에서 간행한 현전 판본을 간행연대 순으로 소개하여 간행 불서의 선후관계를 밝힐 것이다. 이어 간행 주도자인 혜순 그리고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사실을 조사함으로써 특징과 간행방식 등도 살피고자 한다.

2. 용복사

1630년 전후에 중부권 불서간행의 중심사찰이었던 용복사는 폐사된 탓인지 寺誌는 물론 사찰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전하지 않는다.²⁾ 그래서 창건시기도 알기가 어렵다. 성종 25년(1530)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삭령에 소재한 사찰로는 영원산의 觀音寺와 홍성산의 將軍寺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³⁾ 그렇다면 용복사는 빨라도 16세기 중기에 창건된 사찰로 추정할 수 있다. 『편양당집』의 발문에서 常山後人은 “赤猪(1647) 3월에 白雲寺⁴⁾에서 판각하고 용복사에 목판을 두었다.”⁵⁾고 하였다. 또 『기암집』의 목판도 1648년 4월에 “삭령의 용복사에 두었다.”⁶⁾고 하였으므로 용복사와 판전은 1648년 4월까지의 잘 보존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된다.

그런데 강석규(1628~1695)의 『오아재집』에는 “龍腹寺次杜工部秦州雜詩韻” 등 용복사와 관련된 시 3수가 남아있다. 이 시들은 저자의 활동시기로 보아 17세기 후기에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에는 “寺在雲山第一峰”, “貝葉蓮花淨”, “龍腹此遊真絕勝” 등과 같이 용복사의 위치나 특징적인 모습을 표현한 문구가 보인다. 이 문구들을 참고하면, 용복사는 수청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깊은 산속

2) 慧心の “龍腹寺慶讚上堂”의 용복사는 경상남도 사천 소재의 사찰. 權相老, 『韓國寺刹事典: 下』 (서울: 이화문화, 1994), 75.

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3. 京畿 朔寧郡 佛宇.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京畿 永平縣 佛宇. “白雲寺, 在白雲山.”

5) 常山後人, 『鞭羊堂集』 跋文. “歲在赤猪(丁亥:1647), 暮春之既望, 刻于白雲, 藏於龍腹.”

6) 法堅, 『奇巖集』. “順治五年戊子(1648), 四月日, 留鎮, 于朔寧地龍腹.”

승경지에 있었던 사찰로 장경 또는 불서를 많이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⁷⁾

또한 정조연간(1776~1800)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李宜白(1711~?)의 도가설화집⁸⁾인 『오계일지집』에는 저자가 용복사에서 “東方流來의 道書”를 가진 노인과 만나는 내용이 있다.⁹⁾ 이의백의 사망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의 생년과 활동이력을 보아 용복사는 최소한 18세기 중기까지는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혹 용복사를 방문한 이의백이 도가 계통의 인물이라고 해서 불교 사원으로서의 용복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휴정의 『도가귀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 불교계는 유교와 도교까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의백은 용복사 외에도 陵羅寺, 白雲寺, 淨財寺, 구월산 월출암, 頓道庵 등을 周遊하고 있다.

용복사의 정확한 위치 또한 불분명하다. 다만 “말오산, 곧 말탄산¹⁰⁾ 동북쪽 60리에 있으며, 동쪽으로 칠원 효성산과 이어져 있다.”¹¹⁾거나 “군의 동쪽에 있는데 관문에서 70리가 된다.”¹²⁾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1632년 7월에 간행된 『금강반야바라밀경』에는 용복사가 “삭녕의 北面”¹³⁾에 소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용복사의 위치에 대한 초기의 몇몇 문헌기록이나 대강의

7) 姜錫圭, 『整齋齋集』

卷2, 五言律. “龍腹寺次杜工部秦州雜詩韻”, “重疊千山裏, 忽得梵王宮, 貝葉蓮花淨, 金龕玉相空, 燈明仍得月, 松韻不須風, 趺坐蒲團凹, 俄看日出東.”

卷3, 七言律詩. “宿龍腹寺次杜詩四安寺寄裴迪韻”, “寺在雲山第一峰, 上房清絕但聞鍾, 松吟晚籟笙簧韻, 楓帶殘霞錦繡重, 妙悟十方迷法戒, 俗緣千劫愧塵容, 明朝便出山中路, 何處人間着老慵.”

卷3, 七言律詩. “又次杜詩香積寺韻”, “端河漢近人流, 淨夜蒲團可滌愁, 月洗露華窺戶入, 風敲霜葉落庭樞, 佛燈晃耀諸天朗, 法磬清圓十地悠, 龍腹此遊真絕勝, 何如子美上牛頭.”

8) 崔三龍, “李宜白의 梧溪日誌集에 대하여,” 『韓國道教思想研究叢書』 V(1991), 307-334.

9) 李宜白, 『梧溪日誌集』. “余留朔寧水清山龍腹寺, 月夜有老人坐于松下, 點燈開卷, 余就視之, 字若梵篆不可識, 余問册名. 老人曰: 此册凡三卷, 名曰玄妙訣, 東方流來道書.”

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13, 京畿 朔寧. “未吞山, 在郡東五十里, 其山東, 則鐵原府曉星山.”

11) 『京畿道邑誌』朔寧. “龍腹寺, 末應山, 一云未吞山, 東北六十里. 平康界, 東連鐵原曉星山.”

12) 『輿地圖書』: 上. 京畿道 朔寧 寺刹. “龍腹寺, 在郡東距官門七十里.”

13) 『金剛般若波羅蜜經』. “崇禎五年壬申(1632)七月日京畿道朔寧地北面水清山龍腹寺開板.”

위치만을 그려놓은 고지도¹⁴⁾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176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서』에는 “내문면 오리동리 인데 지금은 폐사되었다.”¹⁵⁾고 되어 있고, 1799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우고』에도 “수청산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사되었다.”¹⁶⁾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용복사는 빨라도 16세기 중기에 창건되었다가 18세기 중기에는 재해로 인해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⁷⁾

3. 간행불서와 특징

3.1 간행불서

1628년부터 1643년까지 용복사에서 간행된 불서 중에서 현재 공개되어 전하는 판본은 <표 1>과 같다.¹⁸⁾ 물론 그 종수는 향후 추가로 발견될 여지가 없지 않는 데다 적은 분량이어서 함축된 경우에는 1종으로 구분한 경우도 있으므로 26종이라는 종수는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¹⁹⁾

이들 불서들은 대개 강원의 교제, 의식서, 淸虛의 저작, 禪書 등으로 대별된다.

14) 용복사의 위치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리지는 여럿 전함.

15) 『輿地圖書: 上』 京畿道 朔寧 寺刹. “龍腹寺 …, 乃文面梧里洞里, 今廢.”

16) 『梵宇攷』 京畿道 朔寧. “在水淸山, 今廢.”

17) 權相老, 『韓國寺刹事典: 下』 (서울: 이화문화, 1994), 74.

여기에는 『범우고』의 기록과 『梧溪日記集』 중에서 용복사 관련 기록이 소개되어 있다. 『한국사지총람: 상』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141.

“내문면 오리동리에 있다고 전하나,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사찰에 대한 자세한 연혁은 알 수 없다. 『輿地圖書』와 『梵宇攷』에 ‘水淸山에 있으나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18세기 중반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梧溪日記集』에도 사명이 언급되어 있다.”

18) 『誠初心學人文』은 보통 『發心修行章』, 『野雲自警序』, 『蒙山和尚法語略錄』 등과 합본하여 간행하므로 『誠初心學人文』이라는 대표서명으로 1종으로 취급하였음.

19) 『天台末學雲默和尚警策』은 현재 몇 장만이 전하지만 의미가 각별하므로 별도로 취급하였음.

곧 『계초심학인문』, 『선원제전집도서』, 『고봉화상선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대해보각선사서』,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선문염송』 등은 강원교재에 속한다.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영산대회작법절차』,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설선의』, 『운수단』 등은 의식서이다. 이렇게 의식서를 단기간에 간행한 사실을 보아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연차별로 실행에 옮겼을 것”²⁰⁾으로 보기도 한다. 청허 휴정의 저술로는 의식서인 『설선의』, 『운수단』 외에도 『청허집』, 『심법요초』, 『선가귀감』, 『선교석』, 『선교결』 등이 있다. 이렇게 용복사에서 간행된 불서는 임진왜란 이후 승려교육과 의식 그리고 당대 최고 고승의 선 관련 저술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²¹⁾

그런데 1632년 정월에 간행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와 1633년에 간행된 『선가귀감』은 開刊, 開板이라고 된 다른 간본과는 달리 留板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종의 불서는 다른 곳에서 새긴 뒤에 목판을 용복사로 옮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두 종을 간행하기 위해 참여한 화주, 각수, 연판, 별좌, 공양주 등은 용복사 간본에서 보이는 담당 인물과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두 종 역시 용복사에서 직접 판각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용복사 간행의 불서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 두 종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용복사의 불서 간행에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서로 至近의 위치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인근 永平縣의 白雲寺²²⁾의 주지인 曠凜은 교정자로서 혜순의 간행사업을 지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두 종의 판각장소는 혜순의 간행사업을 지원하던 백운사 등 인근의 사찰로 추정할 수 있다.

20) 南希淑,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眞言集과佛教儀式集을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4), 64-65.

21) 이렇게 강원교재와 의식집들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점으로 보아 용복사는 “이력과정이나 불교의식 실행의 중심사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남희숙(2004), 86).

22) 許穆, 『記言』 卷27 下篇 山川 上 白雲山. “白雲山, 圻內大山, 永平縣治東二十里水洞. 有臥龍臺, 水中石臺… 其上白雲寺, 登前樓, 前對石巒, 高壁臨溪, 東州作壁記. 新羅僧道誥, 初創之, 至今八百餘年, 崇禎間, 五臺僧, 曠凜重創云.”

한편 용복사에서 간행한 현존 불서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1628년 4월에 간행된 『대혜보각선사서』이고, 가장 늦은 것은 1643년 8월에 간행된 『석가여래행적송』이다. 그러나 실제 간행사업은 1636년 8월에 『능가아발타라보경』을 끝으로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643년 8월의 『석가여래행적송』은 오랜 공백 끝에 다시 간행한 것인데다 간행 책임자는 혜순이 아닌 勝倫²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자가 바뀌게 된 이유는 혜순이 『석가여래행적송』의 간행을 보지 못하고 入寂하였기 때문이다.²⁴⁾ 이렇게 용복사의 불서간행사업은 1643년에 재개되었지만²⁵⁾ 이후 혜순의 입적과 함께 완전히 종식되었던 것이다.

혜순의 입적이후에도 용복사의 판전에는 『편양당집』과 『기암집』 등의 목판이 봉안되었으나 이들은 용복사에서 간행된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 『편양당집』은 1647년 3월에 인근의 백운사에서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²⁶⁾ 이듬해 4월에 간행된 『기암집』의 판각장소는 밝혀져 있지 않다.²⁷⁾ 그런데 『기암집』 서문은 정해년(1647)에 東州居士 李敏求가 썼고, 백운사에는 그가 쓴 壁記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암집』 역시 백운사에서 판각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런데 백운사를 증창한 주지 曠凜은 이전부터 용복사의 불서간행에 교정자로 참여하는 등 인근에서 지원하던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백운사는 혜순의 생전에는 간행에 직접 참여하였고, 그가 입적한 이후에도 불서 간행사업을 지속함으로써 그의 뜻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23) 勝倫은 혜순과 함께 [1630-1년]경에 『묘법연화경』을 간행한 인물이다(권1 제18장의 우측 하부 판외).

24) 혜순의 직무는 “布施施主 惠淳靈駕.”

25) 志默은 줄곧 간행업무에서 별좌를 맡았으나 이때에는 布施施主를 맡고 있어 혜순의 입적이후 직책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6) 『鞭羊堂集』. “歲在赤猪(丁亥:1647)暮春之既望, 刻于白雲, 藏於龍腹.”

27) 『奇巖集』. “順治五年戊子(1648)四月日, 留鐵于朔寧地龍腹.”

<표 1> 간행시기로 본 옹복사 불서

구분	서명	저자사항	간기	간행연월
1	大慧普覺禪師書	大慧禪師(宗杲) 著	崇禎元年戊辰(1628)夏朔寧地水清山龍腹寺開板	1628.4-6
2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知訥	崇禎元年戊辰(1628)孟秋朔寧龍腹寺開板	1628.7
3	禪源諸詮集都序	宗密(唐) 述	崇禎元年戊辰(1628)秋朔寧地水清山龍腹寺開板(권상)	1628.7-9
4	高峰和尚禪要	持正(元) 錄 : 洪喬祖 編	崇禎元年戊辰(1628)季秋月日京畿道朔寧郡地水清山龍腹寺開刊	1628.7-9
5	清虛集	休靜	崇禎三年庚午(1630)正月日刊板于京畿道朔寧地龍腹寺	1630.1
6	禪教訣	上同		[1630]
7	心法要抄	上同		[1630]
8	大方廣佛華嚴經疏	淨源 註解	崇禎二年(1629)己巳五月日京畿朔寧地龍腹寺開板(권14)	1629.5
			崇禎三年庚午(1630)六月日龍腹寺開板(권38)	1630.6
			崇禎二年(1629)己巳五月日京畿朔寧地龍腹寺開板(권54)	1629.5
			崇禎四年辛未(1631)五月 日(권70)	1631.5
			崇禎三年庚午(1630)十二月日京畿道朔寧郡地水清山龍腹寺開刊(권120)	1630.12
9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大愚 集述	崇禎五年壬申(1632)孟春日朔寧地水清山龍腹寺留板	1632.1
10	妙法蓮華經			[1630~31] ²⁸⁾
11	妙法蓮華經	鳩摩羅什(後秦) 譯	崇禎五年壬申(1632)仲夏日朔寧水清山 龍腹寺開刊	1632.5
1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²⁹⁾	大愚 集述	崇禎五年壬申(1632)七月 日京畿道朔寧郡水清山龍腹寺刊板	1632.7
13	金剛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後秦) 譯	崇禎五年壬申(1632)七月日京畿道朔寧地北面水清山龍腹寺開板	1632.7
14	金剛般若波羅蜜經		崇禎五年壬申(1632)九月日京畿朔水清山龍腹開板	1632.9

28) 이 판본은 완본을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간년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시주자인 李彥卜과 金春卜은 1630년 6월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8의 시주자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판본은 1630~31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9) 권미제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구분	서명	저자사항	간기	간행연월
15	雲水壇	休靜	崇禎五年壬申(1632)十月日京畿道朔寧水清山龍腹寺開板	1632.10
16	禪家龜鑑	休靜	崇禎六年癸酉(1633)月日朔寧龍腹寺留板	1633
17	禪教釋 ³⁰⁾	上同		[1633]
18	誠初心學人文	知訥	崇禎甲戌(1634)三月日龍腹寺開刊	1634.3
19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宗密(唐) 疏	崇禎七年甲戌(1634)仲夏京畿朔寧郡地水山龍腹寺開板(권5)	1634.5
20	說禪儀 ³¹⁾	休靜	崇禎甲戌(1634)七月日京畿朔寧龍腹寺開刊	1634.7
21	靈山大會作法節次	未詳	崇禎七年甲戌(1634)九月日京畿朔寧水清山龍腹寺刊	1634.9
22	天地冥陽水陸雜文	未詳	崇禎八年乙亥(1635)十二月日朔寧龍腹寺開板	1635.12
23	禪門拈頌集	慧謙	崇禎七年(1634)六月日京畿道朔寧水清山龍腹寺開刊(권1)	1634.6~1636.1
			崇禎九年丙子(1636)元月日道峰山廻龍寺開刊于移傳龍腹寺(권14)	
			崇禎八季乙亥(1635)正月中韓日朔寧水清山龍腹寺(권27)	
24	楞伽阿跋陀羅寶經	求那跋陀羅	崇禎九年丙子(1636)八月京畿道朔寧龍腹寺開板	1636.8
25	釋迦如來行蹟頌	無寄 撰集	崇德八年癸未(1643)八月日水清山龍腹寺開板	1643.8
26	天台末學雲默和尚警策	無寄 撰集		[1643]

3.2 특징

위에서 소개한 26종의 불서 중에서 권수가 방대한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수년에 걸쳐 분담 간행한 특징을 보여주고, 『심법요초』는 현존본이 『칭허당집』과 합책되어 있기도 하고, 별책으로 전하기도 하여 연구자에게 판본 상의 혼란을 주기도 한다. 또 완본이 전하는 『선문염송집』은 다른 사찰과 분담하여 간행한

30) 『禪家龜鑑』과 합책.

31) 『東國諸山禪燈直點壇』과 여러 眞言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복사 간본 중에서 분담간행 또는 후대 판본상의 혼란을 주는 3종을 선택하여 그 개략을 살핀다.

3.2.1 『대방광불화엄경소』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기존의 『대방광불화엄경』 주석서를 송나라의 淨源(1011~1088)이 적절하게 편차하여 120권으로 엮은 것이다. 정원의 노력으로 經, 疏, 傳이 하나로 합치게 되어 후대의 학자들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편리하게 된 것이다.³²⁾ 이 불서는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의 요청으로 은 3,000량으로 수입한 2,900여장³³⁾의 판본이 처음으로 유통되었다. 이후 조선 세종 6년(1424)에 이 목판을 일본에 賜給한³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각하였고,³⁵⁾ 명종연간에도 황해도 귀진사에서 간행한 일이 있었다.³⁶⁾

용복사에서는 1629년부터 1631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간행하였다.³⁷⁾ 마지막 권인 120권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완간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³⁸⁾ 전본

32) 陳景富, “義天入宋求法活動及其弘法業績,” 『天台學研究』 2집(天台佛敎文化研究院, 2000), 39.

33) 『東坡奏議』 卷6, 論高麗進奉狀, 元祐 4年 11月 3日. “一. … 徐戩, 先受高麗錢物, 於杭州彫造夾注華嚴經, 費用浩汗印板既成, 公然於海舶, 載去交納, 却受本國厚賞, 官私, 無一人知覺者.”

『東坡奏議』 卷8, 乞禁商旅過外國狀. “元祐 5年 8月 15日 … 去年(元祐4年: 宣宗6年: 1089) 11月23日奏, 泉州百姓徐戩 … 爲高麗國雕造經板, 二千九百餘片, 公然載往彼國, 却受酬答銀三千兩.”

34) 『世宗實錄』 5年 12月 壬申. “上又曰 國王所求大藏經板, 我國有唯一本, 難以塞請, 但欲以密敎大藏經板, 註華嚴經板, 漢字大藏經, 全部送之.”

『世宗實錄』 6年 1月 乙酉. “上遣護軍尹仁甫, 諭主籌等賜 … 注華嚴經板 … 注華嚴經板, 則上世宗師, 大覺和尚, 以國命, 請于宋朝, 浮海以來.”

35) 姜碩德, 『東文選』 卷103 華嚴經跋.

36) 嘉靖三十六年丁巳(1557)七月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

嘉靖三十九年庚申(1560)孟秋日黃海道文化地九月山月出庵開刊瑞興地歸眞寺留板.

嘉靖四十三年甲子(1564)春畢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

37) 그런데 마지막 권은 1630년 12월에 간행되었으나 권70은 이보다 늦은 1631년 5월에 완성되었으므로 卷次 순으로 간행한 것은 아니었다.

38) 『대방광불화엄경소』(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9-1호).

중에서 간기와 실무자 명단이 남아 있는 권으로는 권14·38·54·70·120 등이 있다. 여기에 남아있는 刊字 등 실무자 명단을 살펴보면 간행 당시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곧 권38에는 간자 17명, 목수 3명 등 20명, 권120에는 간자 11명, 연관 3명 등 14명 등 많은 실무자들이 소개되어 있으나 권14·54·70·118에는 각각 한 두 명만 소개되어 있다.³⁹⁾ 다행히 이 인물들은 다른 권에서 간자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용복사가 간행을 주도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용복사에서 모든 권을 간행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실은 권38의 실무자 중에서 “往者 信英”이라는 직무와 인물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往者”란 바로 뒤에서 소개할 『선문염송집』의 실무자 중의 “往來人”, “來往” 그리고 1635년에 완성한 『천지명양수륙잡문』의 실무자 중의 “내왕”과 같은 직무일 것이다. 곧 “往者”는 분담하여 간행한 사례에서 보이는 “왕래인”, “내왕”과 같은 직무이며, 이들은 본사와 분사를 왕래하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인 것이다.

이렇게 『대방광불화엄경소』 120권은 용복사에서 모두 간행한 것이 아니라 인근의 사찰과 분담하여 간행하였다. 이때 信英은 양쪽을 왕래하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분담간행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직무인 “往者”, “왕래인”, “내왕” 등은 용복사 간본에서 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2.2 『심법요초』

휴정의 선사상을 살필 수 있는 『심법요초』의 용복사 간본은 별책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그 분량이 적은 탓에 『청허집』⁴⁰⁾과 합책으로 전하기도 한다. 곧 규장

『대방광불화엄경소』(직지사 소장).

이현자, “直指寺 所藏 佛書의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2002), 48.

39) 法哲, 冲益·學問, 學修, 祖云 등.

40) 『청허집』은 休靜(1520~1604)의 제자인 惟政(1544~1610)이 편찬한 뒤 광해군 4년(1612)에 처음 간행되었다. 용복사 간본의 4권 말미(동국대 소장본)에는 휴정의 제자인 “보진과 쌍홀 등이 스승이 지은 7편을 찾아서 지금 간행하여 후세에 전한다(“崇禎三年庚午(1630) 春王月日, 小弟子, 葆眞双屹等, 謹持先師所撰七篇, 刊行于今, 傳於後世”)고 한 바와 같이

각 소장본은 별책이고,⁴¹⁾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청허집』 권5-7과 합책되어 있다.⁴²⁾ 초인본으로 추정되는 규장각 소장본은 전 13장이다.⁴³⁾ 이 중에서 『심법요초』는 모두 10장이고, 제11장은 “江西百丈黃蘗臨濟四大師上堂序”(四溟 述)와 “西山贈玩虛堂傳法偈” 그리고 제12장은 발문이다. 아랫부분에 충해를 입은 마지막 제13장은 『심법요초』가 아닌 『청허집』 권3의 제26장이다.⁴⁴⁾ 그런데 이 소장본은 간행기록이 없으므로 “鍾峯의 手稿를 海印에서 간행하였다.”는 발문의 첫 부분을 근거로 해인사판본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⁴⁵⁾

그런데 발문에는 제11장에 수록된 사명당서와 임종계 등이 증보된 사실이 밝혀져 있고, 이 발문을 쓴 사람은 大化士 惠淳으로 되어 있다.⁴⁶⁾ 이 발문은 제12장이라는 張數로 보아 간행 당시 『심법요초』 뒤에 편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필 대화사 혜순은 용복사에서 불서를 간행할 때 항상 책임자였다. 그렇다면 이 『심법요초』 역시 『청허집』과 비슷한 1630년경에 용복사에서 간행한 판본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⁴⁷⁾

당시 증보하여 7권으로 간행하였던 것이다. 간행 시기에 대해 권4와 권7의 권미에는 동일하게 1630년 정월로 되어 있다.

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1840-9).

42) 국립중앙도서관(B13648-97-16).

43) 제5장 전면 하단에 원형의 작은 스탬프의 은인(『京城帝國大學圖書』)이 있다. 전 12장의 어미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곧 제1-3장은 내향흑어미, 제4장은 내향2엽화문어미, 제5-6장은 내향상2엽하[문자]화문어미, 제7-10장은 내향흑어미, 제11장은 상흑어미, 제12장은 내향흑어미 등이다.

44) 이렇게 장책된 점으로 보아 별책인 규장각 소장의 『심법요초』도 처음 『청허집』과 함께 장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5) 송정숙, “서산대사의 심법요초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95-200.

46) 惠淳, [跋文]. “刊鍾峯手稿于海印也. 此集亦抄而刊焉, 所欠者, 多矣. 四溟之碑文, 西山之稿序, 乃許端甫所撰, 錯承宗派, 不可流目, 於後人參席之背, 無不愴然. 於是采集群賢之記, 亦及諸山之碑, 宗源曆歷, 流派昭昭, 是故以正其序, 書之于此. 後之達者, 校其當否, 又四溟玩虛二大師, 皆西山傳法弟也. 四溟堂序, 與臨終偈, 此文至小, 不可獨行, 故并附于此. 此亦勿疑幸甚 大化士 惠淳.”

47) 현재 1630년경에 간행된 용복사 판본은 간행년이나 간행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664년에 간행된 安心寺 판본이 국역 대본이 되는 등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행미상의 규장각 소장본이나 『청허집』과 합책된 국립중앙도서관 합책본의 『심법요초』가 이보다 이른 판본이다.

3.2.3 『선문염송집』

慧謙(1178~1234)의 사상과 문학관이 응집되어 있는 『선문염송집』은 후대 參學者들을 묘법의 경지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禪書이다. 조선에 와서는 선조 1년(1568)에 平安道 順安의 法興寺 留板本 이후 용복사 간본이 다음이다.⁴⁸⁾ 용복사에서는 1634년 6월부터 1636년 1월까지 이 『선문염송집』 30권을 완간하였다.⁴⁹⁾ 간행에 소요된 2년 8개월은 권수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불서를 간행할 때보다는 긴 기간인 셈이다. 이 『선문염송집』이 간행된 뒤에 용복사의 간행사업이 일단 종료된 사실을 보아 이때에 와서 물자나 비용 등의 조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용복사에서 단독으로 간행하지 못하고 경기도 양주⁵⁰⁾의 迴龍寺와 분담한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선문염송집』은 삭령의 용복사와 양주의 회룡사가 분담하여 간행하였던 것이다. 회룡사는 『선문염송집』을 분담하여 간행하던 1634~5년에도 송나라의 林堯叟가 『춘추좌씨전』을 주석한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를 간행하였고,⁵¹⁾ 이듬해인 1636년 5월에도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를 간행하는 등 국가와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서적을 줄곧 간행한 사찰이었다.⁵²⁾

48) 이영석, “『선문염송』의 편찬에 관한 연구,” 『경토학연구』 제5권(2002), 266, 286.

49) 전라도 寶城의 大原寺에서 인조 14년(1636)에 간행한 판본도 있음.

50)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51) 『潛谷續稿』重刊左傳跋. “崇禎甲乙年間(1634~5), 書局諸公, 得林注舊本, 刊于回龍寺. 丙子之變, 板本散缺, 沙彌杜暹等, 又補刻於湖南…崇禎八年(1635)夏五月下澣…新豐君張維(1587~1638)跋.”

1636년에는 회룡사 목판으로 국용 30권, 어람용 3권 등 33권을 인출하였다.

『承政院日記』仁祖 14年(1636) 7月 8日. “睦敍欽, 以校書館言啓曰; 左傳爲不可無之書, 而本館未有一件. 今聞楊州回龍寺, 有私弊刻板云. 進上國用, 及本館上若干件, 以本館遺在之紙, 依近例摸作印出, 何如. 傳曰; 依啓.”

『承政院日記』仁祖 16年(1638) 5月 21日. “校書校理金鑑啓曰; 亂前回龍寺, 印出左傳, 國用三十件, 御覽三件, 時未粧冊, 令該司所入上下, 粧冊何如. 上曰, 言于該曹.”

52) 그런데 조선 말기까지 “御題·御筆·圖書·儀仗 등을 봉안”하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왕실물품의 보존에 충실한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日記』高宗 17年(1880) 10月 10日. “最應曰, 內需司所報, 則楊州道峯山回龍寺, 奉安御題·御筆·圖書·儀仗.”

한편 『선문염송집』 각권을 간행기록의 유무와 수록범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간기, 실무자, 시주질 등이 있는 권(권1·14·27), 둘째는 실무자, 시주질 등이 있는 권(권4·6·11·12·13·17·19·20·21·23·24·25·26·28·29·30), 셋째는 간행기록이 전혀 없는 권(권2·3·5·7·8⁵³)·9·10·15·16·18·22) 등이다. 간기, 실무자, 시주질 등이 있는 세 권 중에 권1과 권27은 1634년 6월과 1635년 정월에 용복사에서 간행한 것이고, 권14는 도봉산 회룡사에서 간행한 것이다.⁵⁴ 당시 회룡사에서는 권14만을 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양쪽이 간행한 분량을 구별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실무자와 시주질을 통해 분담의 범위는 짐작할 수 있다. 곧 용복사에서 간행한 권1의 각공은 祖瑛 등 13명, 목공은 僅雄 등 5명 등이었고, 권30은 善刊秩에 祖英 등 12명, 鍊板秩은 僅雄 등 6명 등이다. 이렇게 『선문염송집』의 간기, 실무자, 시주자들을 살핀 결과, 권1·27·30 등은 용복사에서 간행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이에 비해 권11과 권14에 수록된 실무자나 시주질에는 용복사의 간행사업에 참여하던 인명들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회룡사에서 간행한 분량은 권11-14 등 최소한 4권이 된다.

이렇게 분담해서 간행할 경우에는 양쪽을 조정할 담당자가 필요함은 앞의 『대방광불화엄경소』 간행의 사례에서 보았다. 『선문염송집』의 분담간행도 이러한 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 역할을 맡은 직명과 인물에 대해 권1에서는 “往來人 靈洽”, 권30에서는 “來往 靈洽”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영흡이 맡은 “왕래인” 또는 “내왕”이라는 직명은 양쪽을 오가며 조정하는 역할이 분명하다. 그는 1635년에 『천지명양수륙잡문』을 간행할 때도 “내왕” 역할을 맡는 등 조정자의 역할을 계속 담당하였다. 그런데 그는 다른 불서를 간행할 때 연판으로 4회나 참여하는 등 연판 전문가였다. 그렇다면 분담 간행할 때 양쪽간의 조정이 우선시 되는 업무는 연판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53) 원래는 있었으나 매목되었음.

54) 崇禎九年丙子(1636)元月日道峰山廻龍寺開刊于移傳龍腹寺.

4. 혜순과 간행방식

4.1 혜순

한 사찰에서 단기간에 걸쳐 많은 불서를 간행하려면 물자의 조달과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배분 등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용복사에서 이 역할을 맡은 혜순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그는 불서를 간행할 때 大施主兼大化士(『대해보각선사서』), 化主(『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大化主(『선원제전집도서』), 幹善勸化道人·大化士(『고봉화상선요』), 勸化·幹善大化士(『대방광불화엄경소』), 大化士(『심법요초』), 大化主(『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幹善道人(『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 化主(『묘법연화경』), 化主·施主兼化主(『묘법연화경』), 化主(『금강반야바라밀경』), 雲水道人(『운수단』), 化主(『선가귀감』), 大化士(『계초심학인문』), 化主(『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化士(『선문염송집』), 化主(『설선의』), 大化士(『친지명양수륙잡문』), 化士(『능가아발타라보경』), 布施施主(『석가여래행적송』) 등의 직책을 맡았다. 여기에서 화사, 대화사는 화주, 대화주와 통용되는 의미로 “간행 비용을 마련하는 소임”을 말하고, 권화는 “재물을 바치도록 권하는 소임”을 말한다. 이렇게 간행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이 직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그는 대시주자 또는 시주자로서 참여할 때도 대화사 또는 화주를 겸직하는 등 용복사 간행업무의 주역이자 책임자였던 것이다.⁵⁵⁾

그러나 혜순에 대한 기록은 僧傳, 비문 등에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생몰년이나 당대의 위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다행히 용복사에서 간행된 불서 중의 몇몇 발문을 통해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1628년 가을에 간행한 『고봉화상선요』의 발문이다.

“무릇 대화사 혜순이라는 분은 총명하고 기예가 있어서 공수⁵⁶⁾와 같은 기교로

55) 유일하게 간행을 보지 못하고 입적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布施施主”라는 직책이었음.

씨 나라에 이름을 날렸으니 어찌 지혜롭지 않은가? 아이 때에 耆德⁵⁷⁾이 있었으며, 부귀공명을 하찮게 여기니 사람들은 그를 보리살타의 후신이라고 일컬었다. 하루는 갑자기 불경을 새기겠다는 큰 발원을 한 뒤 (자신의 재물을 내놓고) 또 재물을 모으기를 2~3년을 지나지 않아 사교와 사집뿐 아니라 『범망경』까지 인출하여 베풀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널리 보게 되었으니 또한 어질지 않은가? 산은 수정산, 절은 용복사인데 뜻하는 것은 용궁의 장경이 이 절에 옮겨졌다는 것이다… 불서를 간행한 스승의 공은 후대에 배우는 사람을 인도할 것이고, 다행히 중요한 것을 뽑아 놓았다. 이 경의 뜻은 천리를 멀다 않고 힘들게 찾지 말고 이 산에 들어가면 용궁의 모든 장경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 절에서 얻게 될 것이다.”⁵⁸⁾

이 글을 통해 혜순의 인물됨과 용복사에서 불서를 간행하게 된 연유를 알 수 있다. 곧 목판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승려인 혜순은 불경을 판각하겠다는 발원을 한 뒤 2~3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교과, 사집과, 『범망경』 등 많은 불서를 간행하였고, 그 목판들을 용복사에 봉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전하는 용복사 간본 중에는 『고봉화상선요』보다 수개월 앞서서 간행된 『대혜보각선사서』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런데도 『고봉화상선요』를 간행할 시기에 이미 많은 불서들을 간행한 듯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본의 간기로 볼 때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글을 통해 혜순의 인물됨, 간행 또는 간행예정인 불서 그리고 목판이 용복사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또 『천지명양수륙잡문』의 권말에도 彦機(1581~1644)가 쓴 발문이 있어서 혜순의 불서 간행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⁵⁹⁾ 언기는 용복사의 간행업무는 “淳公이

56) 기교를 갖춘 목수의 이름.

牟融, 『理惑論』. “工輪, 能與人斧斤繩墨, 而不能使人巧.”

57)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

58) 『高峯和尚禪要』[跋文]. “夫大化士惠淳師者, 仁智人也. 頗聰明識世藝, 以工輪之巧, 名聞於八口之域, 豈不謂智乎? 童年而有耆德, 功名富貴, 輕若草芥, 人指謂薩埵之後. 一日忽發, 諸經板本之大願, 割己儲盡傾, 兼募塵財, 未經二三歲, 而能成四教四集之外, 梵網戒經之板本, 印施. 衆人廣開本有之眼目, 亦不謂仁乎? 山名水清, 寺号龍腹, 意者, 龍宮之藏經, 移版於此寺也. 禪要書狀之綱領, 都序別行之頓漸, 梵網戒經之修因, 楞嚴般若之證位, 華嚴法華與記之因由, 已具各其前敘. 故不繁重論錄成. 諸經板本之師功, 以論後來學者. 幸有要覽, 此經之志, 則不遠千里之險尋, 入此山, 則龍宮萬藏, 因得此寺哉.”

59) 彦機, 『天地冥陽水陸雜文』跋. “法因衆生生, 衆生從法化, 生界若不空, 此法終不廢, 流傳後萬古, 板功居其最. 華嚴, 妙蓮華(妙法蓮華經), 圓覺, 楞嚴經, 金剛般若, 四教最上乘,

서원을 내서” 한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순공”은 물론 “惠淳公”, 곧 혜순을 뜻한다. 당시 혜순이 간행한 목적에 대해서도 “만고에 전하는 佛法 중에 목판으로 간행함이 최상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고 있으나 실은 “이 공덕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기를” 염원한 사실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발문은 병자호란이 발발하기 이전인 1634년 가을에 쓴 것이므로 여기에서 전쟁이란 임진왜란(1592~1598)과 후금의 1차 침입(1627)을 말할 것이다.

한편 이 발문에서는 용복사가 간행한 불서 종류와 간행의 주체에 대한 내용이 있다. 곧 “(판각의 업무는) 무진년(1628) 봄에 시작하여 갑술년(1634) 가을에 마쳤으며, 이 목판들은 삭령의 용복사에 봉안되어 있다.” 또한 “『화엄경』, 『묘법연화경』, 『원각경』, 『능엄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범망보살계경』, 『전등록』, 『선문염송』, 『대혜보각선사서』, 『고봉화상선요』, 교외별전, 『선원제전집도서』, 『법집별행록병입사기』, 『선가귀감』, 『선교석』, 『운수단』, 『청허집』,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등을 혜순이 서원하여 간행하였다고 밝혀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목판의 張數는 본문에 연이어져 있으므로 『천지명양수륙잡문』을 간행하면서 붙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천지명양수륙잡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혜순이 용복사에서 6년간 간행한 불서 전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발문이 『천지명양수륙잡문』의 권말에 수록된 것은 이 잡문이 다른 불서들의 간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1635년 12월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발문이 여기에 첨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발문과 유사한 내용이 “經板後跋”이라는 제명으로 언기의 문집인 『편양당집』에 전하고 있다.⁶⁰⁾ 언기는 발문에서 용복사에서 불서를 간행한 주역과

直指眞實際。梵網菩薩戒 兩經, 明律制。傳燈與拈頌, 書狀, 若禪要, 教外別傳。□祖師徑截門, 禪源別行錄, 蕩執令圓解。龜鑑, 禪教釋, 雲水, 清虛集, 登階大師術要, 妙然行世誌般, 預修文, 幽冥利濟多, 自餘時用法, 若干名不記。淳公發誓願, □□四重,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惟我國土中, 永息干戈事。聖壽萬萬歲, 百姓常安樂, 法寶流塵劫, 孤魂度運臺, 同種善根人, 毘盧藏海游, 始在戊辰(1628)春, 終於甲戌(1634)秋, 藏殿在何處, 朔寧龍腹寺。楓岩彥機謹跋。”

60) 彥機, “經板後跋”. 『鞭羊堂集』 卷2.

그 연유 그리고 간행한 불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마침 어떤 사문이 광대한 마음을 일으켜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우더니, 이어서 만약 대승경전을 거둬 판각하여 이 세상에 유포하면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듣고서 수행할 수 있는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의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였다면 이 세상에서 받은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게 될 것이다. 이에 『화엄경』, 『묘법연화경』, 『월각경』, 『능엄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법망경』 등의 불경과 『전등록』, 『선문열승』, 『고봉화상선요』, 『대혜보각선사서』, 『선원제전집도서』, 『법집별행록병입사기』, 서산의 저술 등을 간행하여 경기도 삭령의 용복사에 함께 두었다.”⁶¹⁾

여기에서 소개한 간행불서와 『천지명양수륙잡문』의 발문에서 보이는 불서는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 문집의 “경관후발”은 『천지명양수륙잡문』의 발문과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발문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휴정의 제자이자 당대의 고승인 언기가 용복사에서 간행한 전체의 발문을 쓴 것은, 용복사에서 휴정의 저술 대부분을 간행한 닷도 있었으나 당시 용복사에서 불서를 간행한 사실 자체가 불교계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고봉화상선요』, 『천지명양수륙잡문』의 발문과 “경관후발” 등을 통해 혜순과 그가 주도하여 간행한 불서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또한 책임자 혜순은 판각을 전문으로 하는 승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후 용복사의 불서간행은 1636년 8월에 『능가아발타라보경』을 간행하는 것으로 일차 종료되었다.⁶²⁾ 1636년 12월에 발발한 병자호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을 것이다. 7년 뒤에 혜순은 다시 『석가여래행적송』을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입적하였고,⁶³⁾ 이후 용복사의 불서 간행사업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61) 彦機, 『鞭羊堂集』卷2, 經板後跋. “適有沙門某人, 發廣大心, 立四弘願, 乃曰: 若使大乘經典, 重成板刻, 流布衆生界中, 人人得聞, 我佛之教, 而薰發種性, 則庶幾報佛恩也. 既報佛恩, 即爲報四恩也. 於是, 即聚華嚴法華圓覺楞嚴般若梵網等經, 傳燈拈頌禪要書狀禪源別行西山, 集于京畿朔寧龍腹寺.”

62) 1636년 11월(1638)에 밀양의 載岳山 靈井寺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의 보시시주로 혜순이 참여하고 있다. 그가 용복사의 불서 간행 책임자인 혜순과 동일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쟁이후에 남쪽지방에서 불서간행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은 짙다고 하겠다.

63) 혜순은 이해(1643) 또는 전년에 입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4.2 간행방식

1628년부터 1634년까지 6년에 불과한 기간에 용복사는 많은 분량의 불서를 집중적으로 간행하였다. 물론 이후 1643년까지 간행사업을 이어가지만 1636년 12월에 청나라의 침입을 받으면서 사실상 간행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혜순을 비롯하여 실무자들이 조화롭게 일을 추진함으로써 단기간에 걸쳐 성공적인 불서의 간행사업을 일차 완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와 비용의 조달 그리고 전문 인력의 확보는 핵심적인 문제였을 것이고, 여기에다 실무자들의 노동 강도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목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구입하였는데 그 공의 절반은 그(혜순)에게서 나왔다. 사방의 공인들이 부르지 않아도 왔고, 그 중에서 뽑은 최고의 공인 30명은 (보수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았다. 추위와 더위에도 멈추지 않고, 5~6년이 걸려 끝을 보았는데 아침저녁으로 하루도 멈춘 일이 없었다. 간행이 완료되자 약간의 부수를 인출하여 배풀고 나머지는 여러 산에 나누어 두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나라에 다시 봄이 오게 되었다.”⁶⁴⁾

이렇게 혜순과 간행을 맡은 실무자들은 5~6년간 하루도 쉬지 않으면서 이 일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용복사에서 간행한 판본은 사찰본이 대개 그러던 것처럼 기존의 불서를 번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전본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이 된다.⁶⁵⁾ 그렇지만 모든 불서를 번각한 것은 아니었고, 필요하다면 교정하

64) 彦機, 『鞭羊堂集』 卷2, 經板後跋. “其板購與食償之, 功半出於己, 皆方其事也. 四方之工, 不召而至, 擇其鎗手第一者, 三十人不拘豐歉. 不廢寒暑, 期至五六年而終, 未聞以朝夕, 不足輟其役一日也. 事成大演慶席, 而禪教諸書, 試印若干件, 以施其與會者, 有餘則分布諸山. 將欲使, 有目皆觀, 有耳皆聞, 因于見聞, 以入如來妙裝嚴域, 然則竺乾之風光. 至今日, 更發於海東之春矣.”

65) 특히 권수가 많은 번각본 불서에 대한 판본 감식에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번각이 많은 용복사 간본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중의 『묘법연화경』(청구기호: B11743-52)은 제7책 권말에 있는 간기(順治13年丙申孟夏黃海道九月山興栗留板)를 근거로 효종 7년(1656)에 황해도 구월산의 홍률사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제1책에 수록된 인명(권두의 변상도 난외에 있는 “化土 惠淳”, “李彥卜·金春卜” 등의

거나 증보하여 간행한 사례도 있다. 교정사례는 『대방광불화엄경소』를 간행하면서 曠凜을 교정의 직책에 임용한 사실⁶⁶⁾에서 알 수 있다. 또 증보사례는 “제자 보진과 쌍홀 등이 가지고 있던 先師(휴정)가 지은 7편을 지금(보완) 간행하여 후세에 전한다.”⁶⁷⁾고 한 『청허집』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래서 용복사 간행의 『청허집』은 이전의 판본인 “광해군 4년(1612)의 초간본⁶⁸⁾에 수록된 글에 비해 수록된 문장이 현저하게 많은 것을 발견”⁶⁹⁾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수정하거나 보완한 사실에 대해 혜순은 『심법요초』의 발문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종봉(1544~1610)⁷⁰⁾이 손으로 쓴 원고는 (이미) 해인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 또한 가려 뽑아서 간행하였지만 빠진 것이 많다. 사명의 비문과 서산(1520~1604)의 유고(『청허당집』) 서문은 곧 허균(1569~1618)이 지은 것인데 종과의 승계를 착오하였기 때문에 후인들에게 전하여 보도록 할 수 없었다. 참석한 무리들은 마음이 아프지 않음이 없었다. 그래서 현인들의 기록과 여러 산에 있는 비문들을 찾아 모으니 근원이 밝아지고, 갈래가 명백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서문을 바로잡아 여기에 이 사실을 적어둔다. 후일 (이 문체에) 정통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비교해 보아라. 또 사명과 완허(1530~1619)⁷¹⁾ 등 두 대사는 모두 서산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자이다. 사명당서와 임종계, 이 두 글은 매우 짧아서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덧붙였으니 이 또한 의심하지 않으면 매우 다행이라고 하겠다.” 대화사 혜순.⁷²⁾

시주자, 책임자인 “化主 惠淳”, 실무자(刊字에 法哲, 祖云, 戒能, 密玄, 學罔, 尙浩 등, 목수에 儀雄(義雄) 등, 別座에 志默)들을 보니, 모두 용복사의 불서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더욱이 혜순은 홍률사에서 이 경을 간행하기 이전인 1643년경에 이미 입적하였다. 그렇다면 전 7책 중에서 제1책은 용복사, 나머지는 홍률사 간본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多卷으로 된 동일 계통의 번각본을 습帙해 놓은 경우에는 하나의 판본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66)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20말.

67) 『청허집』 권4 말미. “崇禎三年庚午(1630)春王月日, 小弟子, 葆眞双億等, 謹持先師所撰七篇, 刊行于今, 傳於後世.”

68) 국립중앙도서관 일산고3648-97-13.

69) 하혜정, 『청허집 권5-7』 해제(국립중앙도서관 古貴3648-97-16).

70) 惟政의 호(四溟堂, 松雲, 鍾峯)의 하나.

71) 圓俊의 호.

72) 『心法要抄』[跋文]. “刊鍾峯手稿于海印也. 此集亦抄而刊焉, 所欠者, 多矣. 四溟之碑文, 西山之稿序, 乃許端甫所撰, 錯承宗派, 不可流目於後人. 參席之背, 無不愴然. 於是采集

이 글에서 보듯이⁷³⁾ 혜순은 허균이 지은 서문에서 범한 오류⁷⁴⁾를 선현의 기록과 비문까지 찾아서 수정하였던 것이다. 곧 惟政이 구술하고 雙佐이 받아 적은 江西, 百丈, 黃蘗, 臨濟에 관한 “江西百丈黃蘗臨濟四大師上堂序”와 “西山贈玩虛堂傳法偈”, “玩虛堂臨終偈” 등을 덧붙임으로써 당시 잘못 알려진 휴정의 법통을 바로잡는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혜순은 이전 간본을 단순하게 번각 간행한 발행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덧붙여 간행하는 편집자의 역할도 수행하였던 것이다.⁷⁵⁾

5. 각수와 연판

대개 불서의 간행을 위해서는 먼저 공양주를 통해 물자와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들은 대개 해당 불서의 권말 등에 실무자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불서를 간행할 경우에는 주도하는 인물들이 줄곧 그 일을 맡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용복사에서 불서를 간행할 때도 혜순이 책임자, 別座를 맡은 志默이 부책임자⁷⁶⁾ 그리고 尙正이 대시주를 계속 맡아서

群賢之記, 亦及諸山之碑, 宗源曆曆, 流派昭昭. 是故以正其序, 書之于此. 後之達者, 校其當否. 又四溟玩虛二大師, 皆西山傳法弟也. 四溟堂序, 與臨終偈, 此文至小, 不可獨行, 故并附于此, 此亦勿疑, 幸甚. 大化士 惠淳.”

73) 김영옥 역주, 『정선 휴정』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2010), 323-328에서는 1664년의 대둔사 안심사본을 대본으로 『심법요초』를 국역한 뒤에 “부록” 항목을 두어 江西百丈黃蘗臨濟四大師上堂序와 西山贈玩虛堂傳法偈, 玩虛堂臨終偈 등을 소개한 뒤 “간기” 항목에서 혜순의 이 글을 소개하고 있다.

또 해제에서 “부록으로 四溟이 지은 4대사 상당 서문과 서산이 玩虛堂에게 준 진법계 그리고 완허당의 임종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p.37)”고 하였으나 안심사본에는 이 내용은 없다.

74) 서산의 법계를 이은 사람은 태고가 아닌 나옹이라고 한 허균의 주장을 말한다(김영옥(2010), 328).

75) 『청허집』 역시 “初刊本에서 散逸된 시를 다시 수집해 체계적으로 엮고, 異板本에는 없는 『登香爐峯』이 수록되었다.”는 특징과 같이 증보하여 간행된 판본이다.

백옥수, “原典 텍스트의 새로운 활용을 위한 『淸虛堂集』 판본 비교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56집(2013), 327-332.

76) 지목이 맡은 별좌는 책임자인 혜순을 보좌하고 실무자들을 통솔하는 업무. 志默은 1628년

이 일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간행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였다면 실제 작업은 실무자들의 몫이다.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刻手와 鍊板 담당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용복사에서 최고수준의 장인 30명을 선발하여 이 일을 완수하였다는 사실을 언기의 발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과연 그들이 용복사의 간행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행에 참여한 장인 중에서 각수와 연판⁷⁷⁾ 담당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찰본의 경우에는 각수와 연판을 의미하는 직무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다.⁷⁸⁾ 용복사에서 간행한 불서에서도 각수는 刊工, 刊字, 刊司, 刊字手, 刻工, 善刊, 刻字, 自刻 등, 鍊板은 板, 板主, 木手, 善手良工, 木工, 板子 등과 같이 여러 명칭을 혼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용복사 간본 중에서 “각수”와 “연판” 담당이 수록되어 있는 18종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그런데 『법집별행록병입사기』의 경우는 각수가 4명, 연판이 2명인데 비해 비슷한 분량의 『예수시왕생칠재의촬요』는 각수가 20명, 연판이 3명이나 된다. 이렇게 분량대비 실무자들의 참여 불균형 사례는 용복사 간본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인당 얼마만큼의 목판을 간행하였는지에 대한 비율을 현전본을 통해 산출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각수와 연판을 담당한 인물들의 참여 지속성에 대해 살핌으로써 당시 단기간에 성공한 용복사의 불서 간행업무의 일부라도 엿보고자 한다.

<표 2>에서 보듯이 1628년부터 15년간에 걸쳐 간행사업에 참여한 각수는 51명,

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와 『선원제진집도서』를 간행할 때는 연판업무를 잠시 맡은 적이 있다. 이후 『운수단』과 『선가귀감』을 간행할 때는 각각 別座舍主, 供養施主兼別座를 맡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는 거의 별좌 역할만을 맡았다.

77) 목수의 업무는 “판목의 양쪽 표면을 대패질하여 반드럽게 하고 또한 兩端에 마구리를 붙이는 작업”으로 본다(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서울: 범우사, 1990), 206).

78) 김상호는 “寺刹板의 鍊板과 諸 役員에 관한 考察”(『대구대학교 사회문화연구』 Vol. 11(1992), 70)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 『법계성범수륙승회수계의례』, 『청허집』, 『운수단』, 『선문염송집』 등에 수록된 연판 담당자들의 인명을 보아 연판, 목수, 선수양공 등은 동일한 지칭어”라고 하였다.

연관은 20명이나 된다. 그런데 2회 이하 참여한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處俊·戒能·密玄은 13회, 性甘(性鑑)⁷⁹·当浩(当湖)는 11회, 法哲은 10회 등 6명이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祖云(祖雲)·密英(密瑛)·學修(學守)는 9회, 緇密은 8회, 法尙(法祥)·性浩(性湖)·印己(印機)는 6회, 冲益(忠益)은 5회, 妙安·學衍·學日(學一)·印珠는 4회, 法浩·灵什·柳淵·學罔(學洞)·雪浩(雪湖)·海先(海禪)·德牛(德祐)·法先·元熙(元熙) 등은 3회나 참여하였다. 연관 역시 1회 참여한 13명을 제외한 7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는데, 灵秀(灵守, 玲守, 灵修)는 9회, 僅雄·海先(海禪)은 8회, 灵洽(令洽)은 4회, 志默·印天·商俊 등은 2회에 걸쳐 참여하였다. 이렇게 각수 27명과 연관 7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여한 실무자들이었다. 이 숫자는 30명의 장인이 간행하였다는 언기의 글과 거의 일치한다.

이들은 가끔 직무를 바꾸어서 간행업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곧 간행 초기부터 각수로 참여한 性浩(性湖)와 承立은 『선문염송집』과 『선가귀감』을 간행할 때는 연관으로 참여하였고, 또 연관에 8회나 참여한 海先(海禪)은 1634년 5월에 간행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선문염송집』, 『천지명양수륙잡문』 등을 간행할 때는 각수로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용복사에서는 간행이 끝날 때까지 화사(화주), 별좌, 대시주자는 혜순, 지묵, 상정이 줄곧 맡아 업무를 주도하였고, 실무자인 각수와 연관들도 지속적으로 융통성이 있게 참여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각수와 연관 중의 일부는 용복사의 간행업무에 참여하기 전후에 다른 사찰에서 참여한 사실이 있었다. 곧 각수 중에서 12회나 참여한 戒能은 1622년에 경기도 淸溪寺에서 『묘법연화경』을 간행할 때 각수, 2회 참여한 性呑(性悟)는 1628년에 영광 隨緣寺에서 『묘법연화경』을 간행할 때 시주로 참여한 이력이 있던 실무자였다. 그리고 각수로 9회 참여한 學修(學守)와 5회 참여한 印己(印機)는

79) 僧名 중에서 음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참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동일인으로 취급하였으며, 이하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용복사의 간행사업이 끝나자 각각 1649년에 통도사에서 『묘법연화경』, 1646년경에 月精寺에서 『선원제전집도서』를 간행할 때 각수로 참여하기도 하였다.⁸⁰⁾

<표 2> 용복사 간행 불서별 각수와 연판담당자⁸¹⁾

구분	서명	각수	연판	직무명(근거)
1	大慧普覺禪師書	法浩, 法哲, 覺撐, 處俊, 戒能, 密玄, 性浩, 柳淵	曇密, 義雄	刊工, 鍊板(권말)
2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法浩, 法哲, 廣惠, 處俊	僅雄, 志默	刊工, 板(권말)
3	禪源諸詮集都序	法胡, 法哲, 處俊, 戒能, 密玄, 覺撐	僅雄, 海禪, 志默	刊工, 板主(권상 말)
4	大方廣佛華嚴經疏	法哲		刊字(권14 말)
		祖云, 性湖, 妙安, 英俊, 密玄, 密英, 性甘, 冲益, 學修, 學衍, 學日, 印己, 法尙, 当浩, 惠双, 灵什, 柳淵	僅雄, 印天, 僅雄	刊字, 木手(권38 말)
		冲益, 學罔		刊字(권54 말)
		學修		刊字(권70 말)
		祖云		刊字(권118 말)
		一玄, 祖云, 法哲, 性浩, 處俊, 戒能, 密玄, 妙安, 密英, 忠益, 學罔, 柳淵	僅雄, 海先, 印天	刊字, 鍊板(권120 말)
5	清虛集	祖云, 法哲, 性浩, 處俊, 戒能, 密玄, 妙安, 密英, 性甘, 德玄, 冲益, 學修, 學衍, 學日, 当浩, 灵什, 柳淵	僅雄, 印天, 宗哲, 道建, 智暉, 灵洽, 灵秀	刊司, 木手(권4 말)
6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崇祐, 祖云, 法哲, 性浩, 處俊, 印機, 戒能, 密玄, 性甘, 密英, 法尙, 忠益, 德玄, 學守, 學一, 緇密, 令什, 雪浩, 玉蓮, 學衍	海禪, 商俊, 玲守	刻手, 木手(권말)
7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處俊, 印己, 戒能, 性甘, 密玄, 密英, 法尙, 当浩, 緇密	海先, 僅雄, 灵洽, 灵守	刊字, 木手(권말)

80) 각 판본의 권말에 있는 시주 간행자 명단에서 확인하였음.

81) 각수와 연판 등 위치가 애매한 실무자의 경우에는 다른 불서를 간행할 때 참여 직책을 미루어 판단하였음.

구분	서명	각수	연관	직무명(근거)
8	妙法蓮華經	法哲		刊字(제1변상도 우측 관외)
		一玄, 法哲, 處熙, 祖云, 戒能, 密玄, 處俊, 性浩, 妙安, 冲益, 學修, 學罔, 弘信, 当浩	僅雄, 宗哲, 勝天, 應卜	刊字, 木手(권1 말)
9	妙法蓮華經	崇祐, 祖云, 法哲, 性浩, 處俊, 印己, 戒能, 密玄, 性甘, 密英, 法祥, 忠益, 學衍, 德玄, 學守, 學日, 玉蓮, 当浩, 灵什, 緇密	海先, 商俊, 灵守	刊工, 木手
10	金剛般若波羅蜜經	祖云, 處俊, 性鑑, 印己, 密玄, 密瑛, 法尙, 學守, 当湖, 緇密	海先, 灵守	刊字, 鍊板(권말)
11	雲水壇	處俊, 印己, 戒能, 性甘, 密玄, 密暎, 法尙, 当浩, 緇密, 五南, 天己, 承卜	海先, 僅雄	刊字手, 善手良工(권말)
12	禪家龜鑑	祖云, 法哲, 處俊, 戒能, 性甘, 密玄, 學修, 当浩, 緇密	海禪, 令洽, 令守, 承立	刊字, 木手(권말)
13	誠初心學人文	祖雲		刊字(권말)
14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祖云, 法哲, 海先, 處俊, 戒能, 性甘, 印己, 密玄, 印珠, 學修, 密暎, 法尙, 德牛, 性吾, 法先, 元熙, 当浩, 緇密, 德信	灵洽, 灵修	刻字, 木手(권5 말)
15	禪門拈頌集	祖瑛, 海先, 印珠, 學修, 德祐, 性悟, 元熙, 法先, 妙安, 學洵, 雪浩, 緇密, 學訓	僅雄, 性浩, 靈修, 覺訓, 靈贊	刻工, 木工(권1 말)
			能旭 등 34명 ⁸²⁾	板子(권11 말)
		祖英, 海先, 吹俊, 性甘, 密瑛, 學修, 德祐, 性悟, 元熙, 學洵, 雪湖, 學訓	僅雄, 性湖, 智英, 灵葆, 灵秀, 覺訓	善刊, 鍊板(권30 말)
16	天地冥陽水陸雜文	海先, 英俊, 戒能, 性甘, 密玄, 印珠, 尙川, 法先, 雪浩, 德牛, 性洽, 雲密, 寶敬	智英, 灵修	刊字, 鍊板(권말)
17	楞伽阿跋陀羅寶經(4권)	戒能 当浩		自刻(권말)
18	釋迦如來行蹟頌	印珠, 当浩, 元熙	僅俊	刻字, 鍊板(권하 말)

82) 인명으로 보아 용복사 팀이 아님.

6. 결 언

용복사는 창건과 폐사 시기도 기록에 거의 전하지 않을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의 하나는 1628년부터 1636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전담인력과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많은 불서를 성공적으로 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한 사찰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많은 불서를 간행하게 되었는지 또 누가 어떤 연유와 방식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경기도 삭령에 있던 용복사는 16세기 중기에 창건되었다가 18세기 중기에 재해 등으로 인해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찰에서는 강원교재, 의식서, 청허의 저작, 선서 등 26종의 이상의 불서를 단기간에 간행하였고, 목판 또한 용복사의 판전에 봉안해 두었던 것이다. 간행업무는 1636년에 병자호란으로 일단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으나 1643년경에 책임자인 혜순이 입적하자 종식되었다.

둘째, 간행한 불서는 강원교재를 비롯하여 서산대사 휴정의 저술, 의식집 등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방대하였다. 이렇게 불서를 간행하게 된 것은 혜순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보급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뜻에서 시작되었으나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기를 염원하기 위한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입지가 이전보다 공고해진 불교계가 기초 강원교재와 의식집의 간행을 통해 불교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 휴정의 선사상도 후대에 전하고자 한 배경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용복사에서 간행한 모든 불서는 처음 간행할 것을誓願한 혜순이 화사, 화주 등을 맡는 등 간행의 책임을 줄곧 맡았다. 여러 발문의 기록에서도 그의 간행에 대한 공적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책임자는 혜순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문이나 관련된 기록이 거의 전하지 않아 승려로서의 이력이나 법통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장인이었던 그는 당시 최고 수준의 장인 30명을 뽑아 하루도 쉬지 않고 5~6년을 걸쳐 이 일을 일차

완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혜순은 판각을 전문으로 하는 승려로 추정된다.

넷째, 단기간에 다양한 종류의 불서를 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현전하는 용복사 간본 18종을 살펴보면, 혜순 자신은 항상 책임자의 역할을 맡았고, 대시주는 尙正, 별좌는 志默으로 거의 고정해 놓았다. 또 각수는 法浩, 法哲, 祖云 등 20여명, 연관은 僅雄, 海禪(海先) 등 7여명이 주로 담당하는 등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운용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분담하여 간행할 경우에는 “往者”, “내왕”, “왕래인” 등의 직책을 두어 양쪽간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전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의 간행방식은 거의 번각이었다. 그러나 허균이 착오한 것에 대해 비문과 여러 기록을 찾아 수록하여 바로 잡고자 하였고, 필요할 경우에는 교정자를 두어 정확성까지 꾀하기도 하였다. 혜순의 이러한 노력으로 용복사에서 간행한 불서 중의 일부는 내용이 충실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용복사 간본]

『誠初心學人文』(1634). 『高峰和尚禪要』(1628). 『金剛般若波羅蜜經』(1632.7). 『金剛般若波羅蜜經』(1632.9). 『大方廣佛華嚴經疏』(1629-31).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1634). 『大慧普覺禪師書』(1628). 『楞伽阿跋陀羅寶經』(1636). 『妙法蓮華經』([1630-31]). 『妙法蓮華經』(163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632).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28). 『釋迦如來行蹟頌』(1643). 『禪家龜鑑』(1633). 『禪教訣』([1630]). 『禪教釋』([1633]). 『禪門拈頌集』(1634-36). 『禪源諸詮集都序』(1628). 『說禪儀』(1634). 『心法要抄』([1630]). 『靈山大會作法節次』(1634).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32). 『雲水壇』(1632). 『天地冥陽水陸雜文』(1635). 『天台末學雲默和尚警策』([1643]). 『清虛集』(1630).

[원전 및 저서]

『묘법연화경』(密陽: 靈井寺, 1638), 『묘법연화경』(文化: 興栗寺, 1656), 『묘법연화경』([廣州]: 淸溪寺, 1622), 『묘법연화경』(靈光: 隨緣寺, 1628), 『묘법연화경』(梁山: 通度寺, 1649), 『선원제전집도서』 ([安岳]: 月精寺, 1646).
『記言』, 『東文選』, 『世宗實錄』, 『承政院日記』, 『潛谷續稿』, 『東坡奏議』.

권상로. 『한국사찰사전: 하』. 서울: 이화문화, 1994.

김영욱 역주. 『정선 휴정』.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위원회, 2010.

문명대. 『지장암』. 서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9.

이진오 역주. 『정선 시선집』.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위원회, 2009.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범우사, 1990.

황갑연, 김기주, 문동규 편저. 『지리산권 불교문헌 해제』. 광주: 심미안, 2009.

[논문 및 전자정보원]

김상호. “寺刹板의 鍊板과 諸 役員에 관한 考察.” 『대구대학교 사회문화연구』 11집(1992. 2). 69-81.

南希淑.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4.

백옥수. “原典 텍스트의 새로운 활용을 위한 『淸虛堂集』 판본 비교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56집(2013. 6). 321-354.

송정숙. “서산대사의 심법요초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53집(2012. 12). 179-203.

이영석. “『선문염송』의 편찬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제5권(2002. 12). 259-292.

이현자. “直指寺 所藏 佛書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2002.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2.

陳景富. “義天入宋求法活動及其弘法業績.” 『天台學研究』 2집(2000). 17-119.

최동원. “禪源諸詮集都序의 板本 研究.” 『서지학보』 제32호(2008. 12). 101-137.

崔三龍. “李宜白의 梧溪日誌集에 대하여.” 『韓國道教思想研究叢書』 5집(1991. 12).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월정사성보박물관. <<http://woljeongsamuseum.or.kr/web2007/main.php>>.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직지정보박물관. <<http://www.jikjisa.or.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불교전서. <<http://buddha.dongguk.edu/bj.aspx>>.

한국역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학자료포털. <<http://www.kostma.net>>.